

보도시점 2024. 2. 28.(수) 09:00
2. 29.(목) 조간

배포 2024. 2. 28.(수) 09:00

국산 밀 제품화 지원 품질관리기준 신규 도입 등 국산 밀 산업 육성을 위한 '2024년 시행계획' 발표

- (수요확대) 국산 밀 제품개발 지원(3억원 한도, '24.신규) 등 수요 확대 지원 강화
- (품질제고) '24년 정부비축밀부터 국산 밀 '품질관리기준' 신규 적용
- (공공비축) 국산밀 정부비축 전년(19천톤)보다 6천톤 늘린 25천톤 매입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농식품부)는 국산밀 자급률 제고 및 수급안정을 위한 「2024년 국산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(이하 시행계획)」을 발표했다.

농식품부는 2025년 밀 자급률 5% 달성을 위한 「제1차('21~'25)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」을 수립('20.11.)하고,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추진하고 있다.

* 밀 식량자급률(%) : ('20) 0.8 → ('21) 1.1 → ('22) 1.3 → ('23p) 2.0 → ('24 목표) 4.2 → ('25 목표) 5.0

2024년 시행계획에는 국산 밀 소비시장 확대 지원, 생산 확대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, 국산 밀 정부비축 확대 등 국산 밀 산업 육성 예산을 확대('23. 403억원 → '24. 500억원)하는 등 다양한 세부 실행방안을 담았다.

* 밀 산업 육성 예산(억원) : ('21) 169 → ('22) 242 → ('23) 403 → ('24) 500

첫째, 국산 밀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. 올해부터 국산 밀을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에 제품개발, 시제품 생산 및 마케팅 비용 등을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신규 지원한다.

* 국산밀 제품화지원 예산(억원) : ('24. 신규) 22.5(업체당 3억원 한도 국고 50%, 약 15개업체)

국산 밀 가공업체 대상 제분비용지원(20만원/톤)을 확대('23, 5천톤 → '24, 6천톤)하고, 안정적 원료공급을 위한 계약재배자금 무이자지원('23, 8천톤 → '24, 10천톤)을 확대한다. 또한, 식품업체에 대한 원료매입자금 지원 시 국산밀 사용을 확대한 식품업체에 대해서는 융자자금 금리를 1% 추가 인하한다.

둘째, 국산 밀 전문생산단지*를 100개로 확대하여 생산기반을 조성하고, 전문생산단지에 대한 우량 종자 할인공급** 및 시설·장비 지원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.

* 밀 전문생산단지(개소) : ('21) 39 → ('22) 51 → ('23) 73 → ('24) 100

** 정부보급종 할인 공급(톤) : ('21) 1,334 → ('22) 2,155 → ('23) 2,280 → ('24p) 2,950

또한, 밀 이모작 전략작물직불 단가*를 인상하고, 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지역**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농가소득 안정성 제고를 도모하였다.

* 밀 이모작(밀-가루쌀-논콩) 전략작물직불 단가 : ('23) 250만원/ha → ('24) 350

** 밀 재해보험가입지역 : ('23) 5개 시·도(충남, 전북, 전남, 경남, 광주) → ('24) 전국

셋째, 국산 밀 생산 증가 추이를 감안, 공공비축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올해 공공비축물량*은 전년(19천톤)보다 6천톤 증가한 25천톤을 매입할 계획이다.

* 밀 공공비축물량(천톤) : ('21) 8 → ('22) 17 → ('23) 19 → ('24) 25

또한, 올해 공공비축부터 새로운 '품질관리기준'을 적용하여 매입한다. 정부는 국산밀의 낮은 품질 균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연구용역 및 실증을 거쳐 용도별(제면·제빵) 등급을 세분화한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였다. 용도 및 등급에 따라 공공비축 매입가격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.

< 국산 밀 품질관리기준 >

사용용도	품종	등급	단백질(%)	수분(%)	용적중(g/L)	회분(%)
중력밀 (면용)	새금강	1등급	10.0~13.2	12.5 이하	780 이상	1.70 이하
		2등급	8.2~9.9, 13.3 이상	12.5 이하	750~779	1.90 이하
		등급외	8.1 이하	12.5 이하	749 이하	1.91 이상
강력밀 (빵용)	금강, 백강	1등급	12.0~15.5	12.5 이하	780 이상	1.80 이하
		2등급	15.6 이상	12.5 이하	750~779	1.95 이하
		3등급	10.0~11.9	12.5 이하	750~779	1.95 이하
		등급외	9.9 이하	12.5 이하	749 이하	1.96 이상

* (중전) 품종별 단백질함량(금강·백강 12%, 새금강 11%)에 따라 등급(양호·보통) 구분 → (개선) 용도별(제면·제빵) 구분, 품질항목(단백질·용적중·회분) 기준에 따라 등급 세분화

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“국산 밀 생산에 대한 정책지원으로 밀 생산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”며, “올해는 국산 밀 자급률 향상을 위해 소비, 생산, 유통 각 분야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펼쳐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붙임 2024년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(요약)

담당 부서	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	책임자	과 장	강동운 (044-201-1831)
		담당자	주무관	류나라 (044-201-1836)

2024년 국산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 주요내용



01 대량·안정적 소비시장 확보

국산밀 수요시장 확대



- 국산밀 제품개발·생산비 지원
업체당 3억 원 한도 제품개발·시제품생산 등 지원
- 원료매입 지원 강화
식품·외식기업 등 국산밀 사용 확대 업체에 '원료매입자금', '외식업체육성자금' 1% 금리 인하
-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국산밀 제품 사용 확대 등 국산밀 학교급식 확대



국산밀 공급 확대

- 가공업체 안정적 원료 공급을 위한 계약재배 물량 확대
(23) 8천 톤 → (24) 10천 톤
- 국산밀 사용(희망)업체에 비축밀 공급 확대
(23) 5천 톤 → (24) 12천 톤
- 국산밀 가공 부담 완화를 위해 제분비용 지원
(23) 5천 톤 → (24) 6천 톤

02 국산 밀 유통·비축 체계화

'품질관리기준' 시행

- 가공적성에 따라 제1·제2 등 용도별로 품질기준 구분

사용용도	품종	등급	단백질(%)	용적중(g/L)	회분(%)
종류별 밀 (인용)	새금강	1등급	10.0~13.2	780 이상	1.70 이하
		2등급	8.2~9.9 13.3 이상	750~779	1.90 이하
		통밀	8.1 이하	749 이하	1.91 이상
강력분 밀 (통밀)	백강	1등급	12.0~15.5	780 이상	1.80 이하
		2등급	15.6 이상	760~779	1.95 이하
		3등급	10.0~11.9	760~779	1.95 이하
		통밀	9.9 이하	749 이하	1.96 이상



정부 비축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

- 정부비축 확대 : (23) 19천 톤 → (24) 25천 톤
매입가격: 용도별 생산단수 차이 등 감안하여 차등
- 산물수매 확대: 건조·저장시설 부족 생산단지에 인근 지역농협 시설 활용 확대
- 건조·저장시설 확충
건조시설 지원 한도 상향(10억 원→12억 원)

03 생산기반 조성 및 안전망 확충

생산기반 조성



- 전문생산단지 확충
*생산단지 목표 : (23/24) 91개소 → (24/25) 100개소
- 생산단지 출입제 도입
역량을 갖춘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출입제 도입
정부비축 등 참여 혜택 부여



생산 안전망 확충

- 우수 정부보급종 종자 공급 확대
(23, 2,280톤 → 24, 2,950톤)
- 생산 안전망 확충
(전략작물직접) 밀 이모작 단가 인상
(23, 250만 원/ha → 24, 350만 원/ha)
(재해보험) 가입지역 확대(23, 5개 시도 → 24, 전국)

04 현장문제 해결형 R&D 전환

우수 품종 육성 및 안정적 작부체계 구축



- 강력분용 우수 품종 보급 및 제2용 품종 개발
강력밀 '황금알' 보급 확대 및 제2용 우수품종 개발
- 밀 이모작 최적 작부체계 개발 및 농가소득 분석
*밀·콩/기루쌀 등 이모작 확대를 위한 생육모델 개발



가공 이용성 증진 연구

- 국산밀 최적 제분조건 설정
국산밀 품질 제고를 위한 최적기준(테퍼링 등) 설정
- 국산밀 균일성 제고를 위한 불렌딩 조건 설정
면용 표준 불렌딩 조건 설정